

기독교 문학의 본질과 방향

김봉균

실마리

현대문학을 애호하는 이들에게 '기독교'와 '문학'은 대개 모순개념으로 인식된다. 근대소설의 싹이라고 서구인들이 내세우는 '데카메론'만 해도 중세 기독교의 치부를 폭로하는 이야기 모음이다. 수도원의 위선을 폭로하는 이 이야기의 어조는 다분히 야유에 가깝다. 더욱이 르네상스적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하게 된 근대 이후, 무신론화의 길을 걸어 온 서구 지성에게 기독교는 문학의 적대자로까지 몰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와 현대문학은 과연 모순개념이며 적대 관계에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세속적 문학과 기독교 문학은 대답을 달리한다. 세속적 문학은 그 속성상 경험의 세계를 강조하고,

기독교 문학은 정신세계, 영혼의 파동을 포착하여 보여준다. 세속적 문학은 사물의 실체를 경험적인 것에 국한하여 인식하므로 존재의 실체에서 신비의 차원을 거세한다. 진리의 본체인 신비의 차원을 거세한 세속적 문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류문명의 황혼과 T.S. 엘리엇의 '황무지'뿐이다. 황무지 최후의 황제가 낚시질을 하는 20세기라는 시간의 강물¹⁾ - 거기에 담긴 세속적 소망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기독교 문학은 소리없이, 은밀한 도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속적 문학이 섬기고 추구해 마지않는 과학적 결론, 그것은 기독교 문학의 눈으로 볼 때 결코 필연적인 진리의 본체에 대한 통찰의 소산이 아니다. W. 블레이크의 시에서처럼 기독교 문학은 한 알 모래 속에서 세계를,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²⁾ 다시 말하여 기독교 문학은 현상 속에서 존재의 감추인 뜻(비밀)을 읽으며,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본다. 세속적 문학의 현상과 기독교 문학의 존재론적 실체, 세속적 문학의 시간과 기독교 문학의 영원(은 새문명의 장³⁾)을 여는 '선한 싸움'의 양상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학'과 '기독교'가 모순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 점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다.

-
- 1) T.S.Eliot의 "The Waste Land"의 마지막 장면. 강물은 시간과 영원의 원형 이미지를, 낚시질하는 왕의 모습은 부활의 소망을 암시한다는 해석에 따른 진술.
 - 2) William Blake의 시 '순수의 전조(Auguries of Innocence)' 참조.
 - 3) A.Toynbee의 문명사론의 내용을 원용한 말임. ① T.Toynbee 지음, 李泰永 역 「역사의 연구」(서울: 대양서적, 1973) 참조. ② Gordon H.Clark, *A Christian View of Men and Things* (Michigan: Baker Book House Co., 1981) 참조.

A. 토인비나 O. 슈펜글러의 분석적 결론대로 이제 서구 문명은 지성이나 기술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반면, 정신의 세계에서는 참담한 실패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제 황혼기, 쇠퇴기에 든 것이다. 이때야말로 요한계시록적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20세기 말 이 시대가 종말론적 징후를 보인다면, 지금처럼 성서적 구원의 요청이 갈급한 시기가 있겠는가?

종말론적 암흑의 색조가 극도로 짙어가는 이 시대, 그 암흑적 인생 드라마, 어둠의 주인공인 현대인의 참회와 구원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롬13:12)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지금이야말로 시각을 다루는 때가 아닌가?

기독교적 구속사관에서 볼 때 에덴 이후 인류사는 실락원의 역사이고, 그러므로 기독교 문학의 핵심은 죄와 고난, 참회와 구원의 문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문학은 교회의 예배와 찬송에 사용되는 단순한 예배문학이 아니다. 세속에서의 기독교 문학은 연단에 이기고 거둬내는 실존적 통고(痛苦)의 체험과 깊은 관련 속에서 창작되고 읽힐 것이다.

이 글은 이 같은 핵심 문제에 초점을 두고 몇 개의 장절로 나누어 진술될 것이다.

I. 기독교문학의 정의

신구약 성서 66권은 기독교 문학의 사상과 기법의 모태가 된다. 기독교 문학이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창작된 문학이다. 혹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기독교적 소재를 다룬 작품은 기독교 문학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겠으나 그것은 기독교 문학과 유사(類似) 기독교 문학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무의식적으

로, 우연히 기독교 문학과 속성을 같이 하는 작품은 신학적 일반계시의 문제를 던지며 또 그것의 뜻이나 교훈이 기독교적 정신을 제시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기독교 문학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비평가나 독자의 수용 쪽에서 어떤 문학 작품이든 독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비평가나 독자가 기독교적 상상력 내지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가령 김동리의 토속적인 작품 '역마'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자유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당사주의 운명론을 추종하는 한, '역마'적 상상력은 어떤 변신을 통해서도 기독교 문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운명이나 허무의 종교가 아니라 운명과 허무를 넘어서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학이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씌어야 한다는 말은 기독교 작가의 윤리적, 신학적 의도가 작품의 표면에 교술성을 띠고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좋은 기독교 문학은 종종 하나님 얘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모습을 그린다. 좋은 기독교 문학은 '사랑'이란 말 없이 사랑하기를 체험케 하고, '빛'이나 '소금', '신.망.애'란 말도 아니 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인간상, 믿음·소망·사랑의 삶을 제시한다. 이러한 데서 우리는 기독교문학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운동주의 '서시(序詩)' 같은 작품에서 '주어진 길'이 무엇인가는 독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하겠으나,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안다. 한 마디로 좋은 시다. 또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문학작품은 아니지만 전영택 목사의 단편 '화수분'에는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 얘기가 드러나 있지 않다. 죄와 수난과 참회, 징벌이나 축복의 어떤 진술도 없다. 그럼에도 그 절정과 결말 부분에는 사랑, 죽음, 부활의 의미가 상징적으

로 형상화되어 있어 기독교적이다. 이 때문에 전영택의 소설은 김동인의 '감자' 같은 자연주의적 무신론의 소설과 그 위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김동인이 쓴 '이 잔을' 같은 작품에는 성서적 진실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어, 오히려 기독교 문학적 감동력을 격감시킨다.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자인 작가의 부자연스런 기독교가 이러한 파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외국문학에서 일례를 들자면 죄와 참회,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그런 단어 한 마디 남용하지 않고 증거해 보이던 톨스토이의 '부활'이 결말 부분에서 기독교적 창작 의도를 지나치게 노출시킴으로써 감동력에 큰 훼손을 끼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 문학은 하나님의 '침묵'을 진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상상력은 성서에 기초하고 그것을 정신적 지주로 갖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과 그 역동적 에너지를 뜻한다. 여기서 사용한 '정신적 지주'라는 말은 T.S. 엘리엇가 쓴 것으로 문학의 위대성을 결정하는 요소 그것이다. 기독교적 상상력을 지주로 하여 '황무지', '프루프록의 연가' 등을 쓴 T.S. 엘리엇는 세계의 위대한 문학은 반드시 그 속에 위대한 정신적 지주가 있다고 했다. 어느 한 작품이 문학인가의 여부는 문학적 기준만으로 판별되지만, 문학의 위대성 여부는 필경 윤리적, 신학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될 수 밖에 없다⁴⁾고 그는 말한 바 있고 그것은 극히 타당한 발언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 기독교 문학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윤리적, 신학적 전망은 어떠해야겠는가? 그 해답은 현대인과, 이

4) T.S.Eliot가 "Religion and Literature"에서 한 말.

사회의 삶의 실상과 결부되어 찾아질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지금 이 사회와 역사 현실은 인본주의적이고 반성서적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 기독교 문학의 상상력은 역천(逆天)의 반생명적 세속사를 섬기는 모든 삶의 형태에 맞서서 생명적인 정신 질서를 구축하는 쪽으로 그 방향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 문학은 선한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기독교 문학이 싸울 대상은 원색적으로 표현하여 모든 반기독교적인 것들이다. 그러면 도대체 반기독교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감각적 실증적인 경험의 세계만을 진리라고 믿는 역천의 세속사와 그런 삶의 형태이다.

물론 기독교 문학에 대한 이러한 개념 규정은 신학적인 여러 관점에 따라 따가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를 가리켜 편협한 보수주의자라거나 복음주의에 윤회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삶의 아픈 부분이다. 공언하건대 필자는 대제사장쪽의 사두개파, 분리주의자인 바리새파, 열혈당원인 셀롯파, 은둔주의자인 에세네파 - 어느 쪽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가로막대와 세로막대를 따로 들고 다니며 구원과 천국을 외치는 우리들의 신앙과 그런 상상력으로 쓴 문학 작품만은 거부한다.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떨어진 곳에 무슨 기독교가 존재하겠는가?

생각해 보자.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서구 문명의 위기와 연속적이다. 명작 '25시'에서 작가 게오르규 사제는 서구 기독교 문명의 몰락을 선포했다. 그의 이 선언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까닭은 이렇다. 즉, 지역주의적 개별 국가 형태의 유럽 사회가

기독교 질서에 따른 세계 국가적, 영적 통일체로 통합되었으나, 중세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 없는 타락이 르네상스적 인본주의의 역풍을 몰아왔고, 기독교적 세계 국가 시대였던 중세를 암흑시대라 부르게 했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기독교는 거듭났으나, 인본주의의 거센 바람은 인간이 자아 중심적 힘의 원리에 의지하여 20세기를 혁명과 전쟁으로 황폐화 하도록 만들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인본주의의 열풍은 개인의 본능적 자유의 신장과 물질적 소유의 증대 등을 가져와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에만 몰입하게 했다. 그 결과 인간의 통일적 정신 질서, 영혼의 파동에 엄청난 교란과 훼손이 빚어졌고, 인간은 마침내 인류적 공동선의 표준이 될 객관적 진리의 일탈성을 잃고 물질과 힘을 지향하면서, 반진리의 카오스를 방황하게 되었다. 이것이 근대, 현대 사회의 세속사적 양상이다.

세속사적 혼돈 속에서 인간은 모든 존재에 대한 외경심이 없어졌고, 따라서 거룩하고 신성한 어떤 것도 인간의 삶과 의식 속에서 잔존해 있지 않게 되었다. 자연이나 인간, 기타 어떤 존재든 외경의 대상이 아니라 한갓 재료요,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순결과 지조, 섬김의 삶에서 보람과 기쁨과 감사함을 향유하는 삶은 가뭇없다.

기독교 문학은 이 비참한 역천(逆天)의 인본주의 문화에 응전하여 새문명의 장(章)을 열 선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이 시대 기독교 문학의 정의는 정적인 본질론에서 역동적인 기능론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이는 아직도 '예술을 위한 예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른 이는 문학의 교술성을 배격하고 가치 중립성(Wertfreiheit)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은 삶을 위한 문학이어야

한다. 문학 자체를 위한 문학, 삶과 결별한 자율성 (Autonomie) 문제는 범시대적인 원리로 살아남지 못한다.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요 만물의 영장이란 말을 바꾸면 가치 지향적인 존재라는 뜻으로 풀린다.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실존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존재다. 인간의 삶의 질과 현상은 그가 섬기는 것의 질과 현상에 의해 결정된다.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가 섬기는 가치관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의 한 갈래다. 예술적 형상화의 과정에서 기독교 문학은 지나친 기교나 수사적 장식을 피한다. 영혼의 파동에 감격을 주지 못하는 '말의 성찬'이나 기묘한 재주는 한갓 울리는 팽과리가 될 뿐이다.⁵⁾

요컨대 기독교 문학은 복음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 그리고 그 잠재적 기능은 르네상스적 인본주의 편향의 역천적 세속 문명의 도전에 응전하는 선한 싸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II. 기독교문학의 준거체계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 시인, 작가의 창조적 직관의 소산이다. 기독교 시인, 작가의 창조적 직관은 의식, 무의식 중에 성서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 상상력의 준거 체계와 관련된다. 이 준거 체계를 편의상 몇 개의 줄기로 분해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5) 김희보 : 한국문학과 기독교(서울 : 현대사상사, 1979) 참조.

김주연 편 :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 지성사, 1984. 234면 참조.

1. 창조설화와 타락 이야기

문학으로서의 성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장르로 분류된다.⁶⁾

(1) 설화 : ① 창조 ② 타락 ③ 카인과 아벨 ④ 노아 ⑤ 바벨탑 ⑥ 아브라함 ⑦ 야곱 ⑧ 요셉 ⑨ 모세 ⑩ 여호수아 ⑪ 사사들 ⑫ 롯 ⑬ 사무엘 ⑭ 다윗 ⑮ 엘리야와 엘리사 ⑯ 다니엘 ⑰ 예수 ⑱ 세례요한 ⑲ 베드로 ⑳ 바울의 이야기 등이 대표적이다.

(2) 비극 : ① 사울 ② 솔로몬 ③ 삼손의 생애가 이에 속한다.

(3) 풍자 : ① 요나서 ② 아모스서 ③ 예수의 풍자적 비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지혜문학 : ① 욥기 ② 잠언 ③ 전도서 ④ 비유 등이 이에 포함된다.

(5) 예언문학 : ① 아모스 ② 호세아 ③ 이사야 ④ 미가 ⑤ 나훔과 하박국 ⑥ 스바냐와 예레미야 ⑦ 에스겔 등이 이에 속한다.

(6) 서한문학 : 에베소서를 전형으로 한 사도들의 편지글 21편이 이에 속한다.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이다.

(7) 묵시문학 : 주전 200년과 주후 100년 사이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성행한 문학 양식으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것이다.

현대 기독교 문학이 성서 문학의 장르 체계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은 개인사, 민족사, 인류사의

6) cf. Buckner B. Trawick, *The Bible as Literature* (New York: Barnes & Noble Books, A Division of Harper & Row, Publishers, 1970).

우여곡절과 파란이 아로새겨진 인간 정신의 영원한 지주요 베스트 셀러인 성서의 말씀과 여러 사실들을 정신적 준거로 삼아야 한다.

이 글의 의도가 성서 문학의 해설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주와 인류사의 처음을 연 창조설화와 타락이야기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창조설화는 작가의 인간관, 자연관, 세계관, 우주관의 절대적 준거 체계이며, 타락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조건에 대한 원초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설화는 구약성서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이야기다. 구약 창세기는 때의 시작이요 신약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와 함께 때의 끝이며, 다른 정황과 사건들은 중간에 해당한다. 회귀나 반복이 부정되는 기독교적 시간진행의 직진성은 때의 시작인 창조설화에 잠재되어 있다.

창조설화에서 창조의 주인공(protagonist)은 유일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최고의 주권자, 통치자로서 만유의 창조주 이시다. 만물의 존재성과 생명을 있게 하시는 보존자이시며 온갖 모습을 부여하신 조물주이시다.

기독교 문학가가 명심해야 할 인식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다. 만유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지의 산물이다. 더욱이 만유를 지배하여 땅끝까지 번성케 하신 인간이야말로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존엄하고 축복된 존재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인간관, 존재관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기독교적 인간관이다. 실존인 인간 개체가 본질에 앞선다는 J.P.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는 기독교적 실존관의 도전적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역설적 촉매 작용을 할 따름이다. 기독교 작가와 비평가, 독자는 오히려

S.키에르케골의 실존관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말대로 인간은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실존인 것이다.⁷⁾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진화론적 유인원이 아니고, 자연주의자나 S.프로이트가 말하는 한갓 동물이 아니다. 이점은 뒤에 더 자세히 고찰할 과제이다.

창조설화가 보여주는 창조의 과정은 기독교 문학의 기법과 의식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창조의 과정을 보자. ① 어둠과 구별되는 빛의 창조 ② 공창의 창조와 물의 상하 양분 ③ 땅과 채소, 풀, 과일 나무의 창조 ④ 낮과 밤을 가르는 큰빛(해)과 작은빛(달)의 창조 ⑤ 물고기와 새의 창조 ⑥ 욱축과 짐승, 하나님 모습대로의 인간 창조 ⑦ 안식의 행위로 전개된 창조 과정은 첫날과 둘째날, 셋째날과 넷째날 등이 평행 구조를 이룬다. 이 평행 구조는 “있으라. ……되었다.”의 반복(recurrence)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창조의 여운을 남겨 준다. 또 창조의 구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의 선포(announcement), “있으라”의 명령(command), “그렇게 되었다.”의 보고(report),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의 평가(evaluation),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 날이다.”의 배치(placement in a temporal time)와 같은 창조의 리듬과 질서의 패턴을 보여 주는 것이 창조설화이다.⁸⁾

따라서 기독교 문학의 모든 진술은 “주께서 나(우리·너·너희·그·그들)를 ○○케 하시다.”와 같은 구문 형식의 심층 구조를 일탈할 수 없다. ‘나’를 주체로 하는 인본주의의 세속적 문학과 이 점에서 선연히 구별된다.

7) S.키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서울: 대양서적, 1970), 209-233면 참조.

8) 조신권: 성서와 문학(서울: 신원문화사, 1986), 14면 참조.

다음,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타락 이야기는 인간의 간교한 이성이 나약한 육체의 감성과 영합하여 낳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대목이야말로 비극적인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된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필두로 한 서구의 참회록, 수상록, 괴테의 '파우스트', 톨스토이의 '부활', 호손의 '주홍글자' 등 명작의 원형이 된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학이 갖는 취약성은 기교의 문제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원죄 의식과 참회록의 부재에 있다. 윤동주의 시 '참회록', 이무영의 단편 '죄와 벌' 정도에 국한될 정도로 한국 기독교 문학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깊은 천착과 실존적 통고, 참회의 체험 양식과 거리가 멀다. 이유는 우리 신화가 건국신화에 편중되어 있고, 성경의 창조설화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2. 시적 서정성과 비유 및 역설

성서는 시적 서정성으로 충만해 있다. 또 영혼에 충격적 감동을 주는 비유로 가득 차 있다.⁹⁾

구약에서 시적 서정성이 충만한 대목으로 대종이 되는 것은 시편 23편이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월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23:1-2)

9) Buckner B. Trawick : 앞의 책, 237-240면 참조.

이 밖에도 시적 서정성이 넘치는 시편의 몇 대목을 뽑아 본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시139:9-10)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
이다. (시143:6-7)

현대의 기독교 문학이 꼭 이 같은 문체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혼에 사무치는 이 맑은 시정신은 계승되어야 할 기독교 문학의 정수라 하겠다. 특히 시편 139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같은 부분은 이미지 형상화의 수준으로는 탁월하다.

예수께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중에서도 비유와 시적 서정이 넘치는 대목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5:3-4)

이렇게 시작하는 산상보훈은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

마른 자, 궁핍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등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 널리 알려진 산상보훈의 장절 일부를 이 글에서 구태여 인용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이 대목에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종을 구체적인 인간상이 시적인 분위기와 어조, 문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실존의 의미나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말씀'의 뜻을 현대시는 어떻게 수용, 형상화할 것인가? 서사문학, 극문학 또한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문학적 구원(redemption)¹⁰⁾의 준거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범신론적 자연 서정에 편중된 우리 시가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성서의 소재, 비유의 본의(tenor)와 유의(vehicle)의 준거 체계는 한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성서에 동원된 비유의 매개(유의)로서의 자연은 모두 절대자의 뜻을 투영하는 실체들이다.

예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 사랑과 용서, 성장, 심판의 날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온 축복의 세계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세리와 창녀의 회개에 오히려 더 큰 진실이 기대된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보다 이방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봉사와 사랑, 죄지은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모리악이 말하는 바, 거룩한 것 속의 추악성, 추악한 것 속의 성스러움을 보여 준다.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자라나는 것과, 외부의 힘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발효하는 누룩의 힘을 하늘 나라의 속성에 비유했다. 세상의 끝날을 추수에, 회개 않는 죄인을 가라지나 쭉정이에, 구원받는 사람을 알곡에 비유했

10) Marjorie Boulton, *The Anatomy of Literary Studies* (London, Bost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80), pp.12-13.

다. 악한 종과 충성된 종, 신랑인 예수, 영접하는 마음으로서의 등불과 기름 등 예수의 비유(parable)는 대개 알레고리(allegory)의 형태다.

시편의 지은이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오렘 숨은 뜻을 말하리라.”(78:2) 하였듯이 예수께서도 비유와 역설, 특히 알레고리로 말씀하셨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죽으면 살리라는 건 역설이다. 그러나 그 역설이 주는 교훈은 의미 깊고 또 감동의 힘은 크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야기는 대표적인 알레고리다. 성서의 비유와 역설은 문학정신과 표현기법의 조화, 그 극한적 영예에 갈음된다.

기독교 문학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성서의 표현 기법과 시적 서정성과 서사적 모티프, 존재론과 초월적 문학 사상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3. 서사문학의 인물과 모티프

신구약 성서에는 수많은 인물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있다. 그 중 현대인의 삶과 각별히 밀착된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카인 :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동족 살해(patricide)의 원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순종과 폭력적 살인 행위는 많은 작품의 모티프가 되어왔다.

(2) 노아와 아브라함 : 타락한 세속에서도 절대 진리(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신앙의 조상.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므로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성주의(rationalism), 자기의 주관과 그 가치만을

강조하는 주관주의(subjectivism), 애당초 확실한 것이나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 회의주의(skeptixism), 모든 현상의 본질은 철저한 분석과 탐구에 의하여 파악되며, 따라서 모든 현상은 본질의 철저한 분석과 탐구에 의하여 파악되며, 따라서 모든 현상은 물질로 환원된다고 보는 물질주의(materialism), 모든 것은 변하며 진리는 가치상대적이라고 보는 상대주의(relativism), 존재와 현상의 초월성을 부정하고 의미의 내재성을 주장하는 내재주의(immanentism), 삶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냉소주의(cynicism), 허무주의(nihilism), 향락주의(Freudianism)등에 기울어진 현대인에게 경종이 된다.¹¹⁾

(3) 니므롯 :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려 했던 인본주의적 인간 집단의 교만과 그 파산의 모습을 증거한 바벨탑의 주인공. 세속사적 힘의 한계와 구속사의 의미를 깨우친다.¹⁰⁾

(4) 야 곱 :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팔족 한 그릇에 형에게 상속권을 산 인물. 먼 이방으로 탈출하여 갓은 고난을 겪다가 다시 본가로 회귀하는 통과제의의 입사식 이야기(initiation story)다. '텔레마코스(Telemaecos)', '아에네아스(Aeneas)' 등의 고전과 N.호손의 '영 굿맨 브라운(Young Good Man Brown)', R.L.스티븐슨의 '허클베리 핀(Huckleberry Finn)'의 원형 모티프가 된다.

(5) 요 셉 : 형들의 시기와 박해를 받아 이집트로 팔려 갔으나, 그곳 왕의 신임을 받아 재상까지 된 인물. U자형 서사문학, 극문학의 모티프가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6) 모 세 : 이스라엘 해방의 민족적 영웅형. 죽음과 재

11) 오창희 : 현대지성의 흐름과 기독교인의 대응(대구 :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참조.

생, 영웅의 입문(initiation), 탐색(quest), 속죄양(scapegoat)의 원형 모티프의 주인공. 모세가 광야로 내쫓겨 겪는 정신적 황폐와 죽음의 상징,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원망과 반역은 세계문학의 보편적 모티프로서도 값지다. 그러나 민족적 영웅 모세 대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화자의 어조가 모세를 반영웅이게 한다.

(7) 다윗 : 하나님 신앙과 예술적 영감으로 충만했던 민족의 지도자 다윗왕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바세바와 동침하고 이 비밀을 은폐하려고 바세바의 남편이요 충직한 장군인 우리아를 죽게한 영광과 죄악의 복합적 인물. 그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그 죄의 값으로 그의 아들들의 피비린내나는 살육전이 전개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자의 고난과 참회와 구원의 모티프로서, 기독교 문학의 원형이 되기에 매우 적절하다.

(8) 욥 : 비극적 결함(tragic flaw)없이 처참한 고난을 경험하고 연단을 받으나 끝까지 주님을 섬겨 이긴 신앙의 승리자.

(9) 세례요한 : 죄악과 무질서로 타락한 백성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태 3:2)고 질타하다가 불륜의 해롯왕과 살로메의 에로스적 충동의 재물로 목숨을 잃은 인물. 부당한 권력과 불륜을 전적으로 거부, 항거한 예언자적 지성의 전형이다.

(10) 막달라 마리아 : 군중 앞에 붙들려나와 돌을 맞아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용서받은 윤락녀.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김. ‘파우스트’의 그레첸, ‘죄와 벌’의 소냐, ‘주홍글자’의 헤스터 등 많은 작품의 여주인공의 원형이 되었다. 한국문학에서 이처럼 회개하여 거듭난 구원의 여인상이 희귀한 것은 최대의 약점이다. 윤락의 죄를

원죄(Sin)의 차원이 아닌 단순한 도덕적 체면이나 법률상의 죄(crime)의 문제로 다루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11) 베드로 : 주님을 따라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노라 맹세하고선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한 인물. 즉흥적이고 마음 약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후 수제자가 되어 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실은 거듭난 자의 용기를 대변한다.

(12) 바울 : 신약성서의 3분의 2를 쓴 그리스도의 사도. 당대의 지성을 대표하며 기독교인 박해에 앞장섰던 그가 성령 세례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실은 모든 지식인, 박해자에게 산 교훈이 된다. 자기의 세속적인 논문이나 저서를 절대시하는 학자, 구체적인 인물이나 독자에 대한 사랑 없이 마구 필봉을 휘두르는 교만한 언론인, 지식과 기교로 과도히 꾸며 토론을 일삼고 열변을 토하는 웅변가, 정치가, 변호인, 검찰관, 법관 - 모든 선택된 지도급 인사들에게 바울의 생애는 경종이 된다. 사랑이 없이 영위하는 인간의 모든 말과 행적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고린도전서 13장은 현대 기독교 문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침이 되어 마땅할 것이다.

이 밖에도 성서에 나오는 더 작은 인물들, 이를테면 재산의 절반을 내어 놓은 삭개오, 실로암 연못의 맹인, 작은 돈을 바쳐 칭찬받은 흠아미 등 수많은 인간상은 기독교 문학의 준거로서 더 큰 의미를 품고 있을는지 모른다.

Ⅲ. 기독교 문학과 현대사상

앞에서도 몇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적 인본주의

이후 현대사상은 무신론화의 길을 걸어왔고 특히 데카르트의 2원적 사고체계가 이를 가속화 했다. 무신론화에 기여한 현저한 사상은 C. 다윈의 진화론과 자연주의, K. 마르크스의 유물변증법, S. 프로이트 심리학, A.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이다.

기독교 문학의 문제가 어느 문학과 마찬가지로 인식과 형상의 문제라면, 현대사상의 무신론적 인식체계는 기독교 문학에의 중대한 도전 반응으로서의 의미로서 대두되는 것이다.

1. 자연주의와 진화론

자연주의는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이 이신론(deism)을 거쳐 변형된 무신론이다. 자연주의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자연주의 사상에서 ① 물질은 영원하고 존재하는 것의 전부이며 하나님은 없다. ② 우주는 폐쇄 체계 속에서 인과율의 일치체로서 존재한다. ③ 인간은 일종의 복잡한 기계이며, 인격이란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상호 관계이다. ④ 죽음이란 인간과 개체성의 소멸일 뿐이다. ⑤ 역사는 인과율에 따라 연결된 사건의 직선적 연속이며 전체적인 목적성이란 없다. ⑥ 윤리란 단지 인간 자체의 문제일 뿐,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는 상관이 없다.¹²⁾

자연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적 낙관론의 붕괴와 그에 따른 좌절감의 산물이다. 자연주의 사상에서 신앙은 없고, 우

12) cf. ① James W. Sire, *The Universe Next Door* (Illionois:IVP, 1976), 61-75. ② Edward Stone(ed.), *What Was Naturalism* (Ohio:Appleton-century-Crafts, Inc., 1959).

주와 역사와 생명의 주재자는 자연의 힘이며, 인간은 진화한 동물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의 운명은 욕구 좌절과 불행, 죽음과 망각으로 끝난다.

자연주의 사상은 진화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유추적 신념에 지나지 않는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인 것으로 인식되어 현대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놀라운 사건이다. 창조과학회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입증되었듯이,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¹³⁾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영적 존재이다.

폭로의 문예사조인 객관적 리얼리즘이 과학적 실증주의에 의해 극단적으로 경직화된 19세기 후반의 자연주의 문학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¹⁴⁾을 유전법칙과 환경 결정론으로서 규정한다. E. 졸라의 '나나', '루공마카르총서'의 자연주의, 김동인의 '감자', '발가락이 닳았다', '김연실전'의 자연주의적 인간관에 기독교 문학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이에 대한 방향축은 가톨릭 작가 G. 베르나노스의 '갈멜 수녀와의 대화', G. 그린의 '권능과 영광' 같은 작품에서 감지된다.

전자는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가 무서워 도망하였다가 되돌아와 처형당하는 한 수도원장 수녀의 이야기다. 또 후자의 주인공 위스키 신부는 주정꾼에 사생아까지 있는 죄와 신성의 모순에 찬 인물이나, 마침내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교의 길을 택한다. 사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진실성

13) 한국창조과학회(편) :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서울 : 태양문화사, 1981)참조.

14) Reinhold Niebuhr의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에서 따온 말임.

(reality)의 표현에 성실하면서도, 인간을 철저히 동물로 추락시켜 파멸하게 만드는 자연주의적 사실주의 작품과는 다르다.

기독교 문학의 인간관은 파스칼적이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짐승이 아닌 생각하는 갈대이다. 천사와 악마 사이를 왕래하는 비극적인 존재이다. 현대 기독교 문학은 오히려 천사의 찬양에 몰입하기 보다 빛과 어둠에 싸인 비극적인 인간상이나 읊기다운 U자형 플롯으로 짜인 회극적 결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 문학의 주요 과제가 아닐까 한다.

2. 마르크스주의적 결정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본 K. 마르크스적 유물론은 종교적 초월성을 부인하며, 우주와 역사와 인간의 주재자는 경제력이라고 본다. 인간은 진화된 동물이며, 그 본성은 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완전해 질 수 있다. 악의 원천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며, 경제적 혁명을 통한 진보의 극한에서 지상 낙원은 건설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의 의무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에 있으며, 그런 사회에서 비로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평등론은 인본주의, 진화론, 물리적 싸움의 논리가 낳은 소박한 낙관론이다. 마르크스의 낙원건설론은 부르조아지의 위선과 죄악은 매도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절대성을 신봉함으로써 인간의 본성 인식 자체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낸다.

동유럽 공산주의의 이상이 무참히 붕괴된 이 마당에 마르

크스, 엥겔스, 레닌을 더 논할 필요는 없고, 이른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론에 대한 비판도 불필요하겠다. 아무튼 “힘이 정의다(Power is justice).”에까지 발전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혁명과 전쟁론, 집단주의는 이제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폭력 혁명과 전쟁이란 ‘정의’가 아닌 ‘힘’으로써,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제압하는 폭력의 원리이지 선이 악을 징벌하는 섭리의 실행과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 문학은 폭력 혁명과 전쟁의 원리가 아닌 사랑과 기다림과 회개 및 구원의 원리, 강요가 아닌 자유와 허용과 선택의 원리, 배제가 아닌 포용의 원리가 구축하는 영적인 승리를 지향한다. 평등과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선동하는 ‘무기로서의 문학’은 기독교 문학이 아니다.

3. 프로이트 심리학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신앙은 없다. 세계와 인간의 주재자는 성욕(libido)이며, 우주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인간은 생물학적 우연인 동물일 뿐이고, 인간의 본성은 성욕에 이끌리며 자기 중심적이다. 악의 원천은 성욕의 과도한 억제에 있고, 인간의 의지는 부자유하며, 그 의무는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있고, 사회적 책임은 초자아의 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지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문학은 이러한 프로이트적 인간관의 도전에 응전하는 문학이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로서의 동물임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내면에서 빛어지는 영혼의 파동을 통해 실존하게 되며, 본체와의 만남을 향해 영원한 시공으로 영입되는 축복된 존재임을 기독교 문학은 보여 주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진화론, 자연주의, 마르크스주의, 프로이트 심리학은 인간의 자아를 무시하거나 의식된 자아의 가면만을 보고 참된 만남을 통한 인간의 영적 파동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기독교 문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파동과 만남의 관계를 포착하고 제시하는 문학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보여 준 상대주의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일률성마저 회의, 부정하게 한다. 그리하여 모두 의식, 무의식의 자아에 유폐, 소외된 영적 프롤레타리아트다. 정신적, 영적 만남의 통일체를 이룩해야 할 이 시대의 소망은 기독교 신앙에 있으며, 그런 까닭에 기독교 문학의 사명 또한 지대한 것이다.¹⁶⁾

맺음말

현대는 기독교 신앙 위기의 시대다. 지구의 한쪽은 자유를 빙자한 개인주의가 공동체의 이상을 훼손하고, 다른 한쪽은 평등을 빙자한 집단주의가 개인의 존엄성을 유린, 말살하는 모순된 역사를 빚어온 것이 불세비키 혁명 이후의 세속사다.

기독교는 지금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간음한 히브리 여인을 단죄하려는 질문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기독교는 그 문제 제기의 오류를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변증을 깨쳐야 한다. 때가 급하다.

-
- 15) 김희보: 기독교문예사조사(서울:종로서적, 1984), 490-495면 참조.
 16) 김봉군: “한국기독교문학론 서설”운당 구인환 선생회갑 기념 논문집(서울:도서출판 한샘, 1989), 90-113면 참조.

기독교 문학은 복음을 정신적 지주로 하고,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목소리 낮은 문학이다. 기독교 문학은 인본주의적,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적 이기주의, 폭력적 혁명과 전쟁, 낭비 경제적 역천의 세속사와 유물론적 인간을 영적 파동과 사랑으로 혁신하려는 선한 싸움의 문학이다.

기독교 문학은 이제 자유 사회의 낭비 경제, 그 성장 이데올로기 편향의 소비성 문학과, 물리적 싸움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모순을 지양, 통합, 초월해야 할 소명의 빛 속에 놓여 있다.